



머리글

이중현 요셉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대림시기를 시작하며

사회교정사목위원회로 온 지 1년 반 정도가 되어 갑니다. 하지만 지긋지긋한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수용자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의 제 마음을 돌이켜 보면, 처음에는 새로운 사목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 가득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은 조금씩 사그라지고, 지루한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루한 시간에 적응되기 시작하자, 점점 게을러지면서, 이제는 바쁘지 않은 일상에 안주하고 만족하며, 오히려 바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기인 대림을 시작하면서 돌이켜 본 지난 1년간의 저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저의 모습을 누구나 신앙 안에서 경험하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는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갖습니다. 매 순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신앙 안에서 기대하는 무언가를 찾지 못할 때, 우리들의 신앙은 조금씩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신앙적인 모든 행위가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항상 나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만 보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면, 오히려 편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복음적인 사랑보다는 내 개인적인 사랑과 욕망에 죄책감 없이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신앙인인 우리는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 항상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지겹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이켜 봐야만 할 것입니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려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시메온과 한나는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와 봉헌의 삶을 살았기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고되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느님을 바라보며 하느님 곁에서 기도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그야말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의 이 시간을 하느님을 바라보며,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려 노력할 수 있다면, 분명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림시기를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기다림에 지쳐 그동안 잠시 멈춰있었다면, 다시금 힘을 내어 하느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살아가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특별히 가장 소외받고 약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울러 대림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봉쇄되었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수용자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기다림 동안 저의 준비가 미흡하고 부족했지만, 다시금 희망찬 마음으로 높은 담 안쪽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봉사자 여러분과 후원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



11월 2일(화)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을 맞아 광탄 나자렛묘원에서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항상 함께해 주시는 봉사자와 후원회원분들을 대신하여 신부님, 수녀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종현 요셉 부위원장 신부는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들,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이들, 소외된 이들, 잊힌 이들과 함께하시며, 그들 역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며,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형수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정성과 기도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며,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아름다운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기준을 훨씬 더 뛰어넘어 깊고 크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후원회원들의 마음을 가득 담아 기도하고 사형수의 묘 하나하나 세심하게 매만지며,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23차 이사회



11월 12일(금) 교정사목 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사단법인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23차 이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사장이신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을 비롯한 이사, 감사님들과 2022년도 교정사목의 사업방향과 예산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유경춘 주교님은 “우리 교구에 가장 오래된 위원회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 하느님 뜻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며 함께해 주시는 이사님, 감사님께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교정시설 미사 재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각 교정시설의 집회가 재개되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남부교도소는 천주교 영상으로 내부 집회를, 서울구치소 남사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신부님과 봉사자 2명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미사를 함께 봉헌하였습니다. 12월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소로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가 완화되어 더 많은 교정시설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명희 베로니카_분류심사원 봉사자

“어머니, 초콜릿 주세요. 어머니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어머니, 우리 조로 오세요”
어머니, 어머니…. 친근감 있게 불러 주던 아이들과 2012년~2018년 함께 했던 7년의 고봉중고등학교 봉사를 끝내고 2019년 1월 분류 심사원을 찾았습니다.

분류심사원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살레시오 신부님과 수사님들의 지도하에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9시부터 살레시안들과 봉사자들이 2층 봉사자 회의실에 모여 기도, 영적 독서, 그날의 계획 점검 후, 두 팀으로 나눠 소년들의 강당과 소녀들의 강의실로 파견되었습니다.

저는 기타를 메고 대부분 소녀들의 강의실(30~60명)로 파견되었는데, 저의 역할은

- 친구들이 입실할 때 신나는 기타 소리를 들려주기
- 본 프로그램 전에 5분가량 성가 부르기를 통해 오픈 마인드 조성하기(기타 반주)
- 프로그램 후 다음 주 퇴소하는 친구들에게, 다음 주에 퇴소하는 친구들과 봉사자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러 주기
- 메인 프로그램 중에는 진행자를 도와주는 진행 보조

10시쯤 시작할 때 서먹한 분위기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밝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11시 30분에 끝나면, 나눠있

던 두 팀은 다시 합쳐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피드백 시간을 가지며, 발전적인 다음 프로그램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피드백 시간에 미사를 드렸다. 짧은 시간이지만 성체를 모시고 신부님, 수녀님, 수사님, 봉사자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는 참 기록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기를 1년 남짓….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것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벌써 2년이 되어간다. 2019년 겨우 1년 적응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 얼굴이 생각나더니 2년 못가다 보니 자꾸 잊혀 갑니다.

그래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들으며 환해지는 소녀들의 얼굴
-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기도를 청하지? 저, 사회봉사로 끝나게요. 저는 쉽게 판결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순간 잘못으로 들어와 반성과 후회, 불안과 초조가 뒤범벅된 마음에 두 소녀가 부탁했던 말
“기도해 주세요!!”

분류 심사원의 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주님 안에 우리의 적은 노력이 그네들에게 변화의 씨앗이 될 거라고 믿기에 기도하며 진심 어린 관심을 갖고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탈출기의 파라오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 시대의 파라오가 이스라엘과 열두 아들을 이집트에 머무르게 했다면(창세 47,6), 탈출기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도 않겠다(탈출 5,2).”

하긴 파라오에게 찾아가,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나가게 해주시라고 부탁하면 들어주리라 생각한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백성보다 많아졌고(탈출 1,9; 5,5) 벽돌 생산이라는 이집트의 주요한 기반 산업을 책임지는 한 축이었습니다. 강제노동을 당하면서 이집트 사람에게 맞기도 하고(탈출 2,12), ‘고역에 짓눌려 탄식하며’ 하느님께 부르짖기도 하는 등(탈출 2,23) 고된 생활이었지만,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16,3) 먹고, 또한 부당한 노동 조건에 대해서 대표자가 직접 파라오에게 항의할 수도 있었던 것(5,15)으로 보아,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가 없이 노동 착취만 한 것은 아니고, 또 파라오와 이스라엘 민족 간의 의사소통이 꼭 막힌 것은 아닌 듯싶습니다. 아무 직함도 없는 두 어르신, 모세와 아론도 그냥 파라오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뜬금없이 자신을 찾아와 하느님께 제사 드리려 하니, 우리 민족에게 휴일을 주어 다 해외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않도록 부추기느냐? 너희 일터로 돌아가라”(5,4)라고 호통치는 파라오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성적인 결정에 감정이 섞입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짚은 주지 않고 직접 모아 오게 하면서, 동일한 벽돌 양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조장들이 파라오에게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는데, 자신들을 “임금님의 종”(5,16)이라고 칭합니다. 자신들을 낮추어 부르는 말일 수도 임금 앞에서 임금을 높이는 말일 수도 있지만, 파라오를 ‘주님’, ‘신’으로 모셨던 이집트인들의 풍습에 물든 것은 아닌가 추정해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는 것은, 자신의 소유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빼앗기기 싫어했던 것일 수 있고, 또한 짚을 주지 않은 것에는 보복과 질투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파라오는 기적을 요구합니다(7,9). 몇몇 기적은 파라오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이례적 현상’이라고 표현될 법한 기적들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이고, 다른 이유와 원인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현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파라오가 현인과 요술사들을 불러 모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7,11). 이렇게 여러 명과의 논의를 거쳐, 파라오의 생각은 “완고”해집니다. ‘독단’과 ‘완고’는 구별됩니다.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7,13; 7,22; 8,11; 8,16; 9,12)

이 완고해진 파라오의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그 기적들도 강해지고, 그 기적에 따른 피해도 커집니다. 파라오는 타협하려 하기도 하고, 또는 종종 들어주겠다고 하기도 하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만, 재앙이 끝나면 다시 완고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 과정에서 모세와 만나게 되는 파라오의 구체적인 잘못이나, 죄, 악행은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성서에서 계속 언급하는 것은 “완고함”입니다.

파라오의 완고함은 처음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주변의 조언과 의견들까지 들어서 확고해집니다. 감정도 실리기도 합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 많은 현상과 상황들이 바뀌고, 하느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보이고, 자신의 결정이 옳지 않음이 드러났지만, 그의 굳어진 마음은 풀리지 않습니다. 타협하는 척, 포기하는 척하지만, 상황이 종료되는 듯 보이면 다시 고집합니다. 그리고 이 경직된 마음 때문에, 파라오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느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피해는 점점 커집니다. 결국 이집트 온 백성이 말아들을 잃고, 심지어 짐승의 말배까지 죽는 큰 피해를 입고도 파라오는 그 완고한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마저 바닷속으로 들어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파라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주변이 점점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리하여 모든 것을 다 잃기도 합니다. 물욕에 빠져서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욕심내다가 다 잃기도 합니다. 내 가족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내 결정을 요구하다가 모두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파라오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큰 잘못까지 이르지 않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 지구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점점 그 위기의 증상이 더 커지고, 그 심각성이 더 와 닿습니다. 이런 위기는 우리 개인의 소비 생활을 바꾸지 않아서, 그리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서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형태는 크게 바뀌지 않은 듯 보입니다. 정말 먹고 마시고 쓰고 버리는 우리의 삶의 형태는 “완고”하지 않은가요?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여러 재앙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요?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리타스 창업준비센터' 입주업체 수시 모집

1. 신청 대상

- 사회적약자, 취약계층

2. 모집내용

개요	창업준비센터
공간 면적	- 83.62㎡(25.3평) - 최대 7개 업체 입주 가능
입주 기간	- 1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해 6개월씩 연장 가능(최대 2년)
입주 시기	- 수시

3. 입주 조건

가. 보증금 : 없음

나. 관리비 : 없음

다. 입주 기간 : 최초 1년(2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최대 2년 입주 가능)

4. 입주업체 모집 및 일정

가. 신청서 접수 : 우편/이메일/방문 제출

1) 제출 방법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원본 1부

2) 우편/방문 접수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20길 27, '기쁨과희망은행'

3) 이메일 : kyodo@catholic.or.kr

5. 심사기준

가. 서류심사

평가항목	평가 내용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현실성, 구체성/재직경력 또는 사업경력/사업환경분석의 이해도/전문지식 보유 여부/현재 확보된 자금 규모/
사업계획	창업자의 기술력 보유/기술 수준/투자 금액의 적정성/ 목표시장 존재 규모/ 소비성향의 안정성 및 필요 지속성/ 자금 확보, 조달계획의 안정성/적정 이윤의 보장성/판로확보의 실현 가능성

나. 면접심사

평가항목	평가 내용
창업자의 자세	창업자의 의지 및 자질/창업자의 현장 발표력 및 태도/ 창업 관련 업종 종사 경력
기술성	기술개발 추진현황/기술개발 여건 및 전담 인력 확보/ 개발 기술의 수준 및 활용 정도/개발 기술의 기대효과
사업성	제품 경쟁력/판매 및 마케팅 능력/ 사업 전망

6. 제출서류

- 카리타스 창업준비센터 입주신청서 양식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예비창업자 제외)
- 주민등록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기타 사업계획서 평가에 관련된 서류(특히, 자격, 인증, 수상 등) 각 1부

7. 문의처

-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희망은행'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20길 27
- 연락처 : 02-923-4726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고마운 분들에게,

저와 종교는 다르지만, 인간에 대한 참 ‘사랑’을 실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몸이 찢기고 정신이 부서져 파편들을 추스르고 있을 때쯤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는 찾아오더군요.

‘불교’를 신봉하고 숭상하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어릴 적 다른 친구들과 같이 ‘산타’의 존재와 선물을 받는다는 건 허망한 꿈에 불과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중년의 나이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서 뿌옇게 변해버린 세상을 연신 손으로 닦아 내었습니다.

겨울 양말, 초콜릿, 사탕, 과자 등등 소박하지만, 꼭 필요한 물품들이었기에 감동은 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님께도 깊은 감사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사건’의 억울한 피해자인 ‘윤성여’ 씨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동질감에 가슴 아파한 기억도 잠시, 다시금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해야 하는 것과 같이 제 왼쪽 손목에 남겨진 흉터를 바라보며 이날을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성탄 선물을 받으시고 출소하신 익명의 출소자가 후원금과 함께 감사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2022년 1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 1월 3일(월)
- ▶ 1월 10일(월)
- ▶ 1월 17일(월)
- ▶ 1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 / 중서울 길음동성당
- / 동서울 광장동성당
- / 서서울 양천 성당

2022년 제22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교정시설에 간혀있는 형제, 자매들의 교정교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 일시: 2022년 1월 영상 온라인 교육 / 2월~4월
매주 금 2~5시 심화 교육(교정사목 센터)
- 회비: 10만원 ● 문의: 02)921-5093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입금자 명의로만 가능

기부금 영수증은 위원회 통장에 기록된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자 정보 알림

1월 5일(수)까지 발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위원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확인 가능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후편 수령은 별도 연락** 바랍니다.

귀한 사랑을 나누어주신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 02)921-5094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에서 출력 가능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 부산교구 양산 성모올타리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공동체 성모올타리는 일반 기술자와 출소자들이 함께 우리밀 100%로 빵을 만듭니다. 인터넷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 : **이레우리밀**)

- ※ 구입문의 : 055)367-2232 / 3만원 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 ※ 농협 351-0425-2610-23 (이레우리밀)
- 신한 140-012-398858 (이레우리밀)



- ▶ 수제청국장식빵 ₩5,000
- ▶ 수제상투과자 ₩5,000
- ▶ 수제단팥빵 3개 ₩5,000
- ▶ 수제통밀식빵 ₩5,000
- ▶ 수제엄마빵 5개 ₩10,000
- ▶ 수제소보루빵 3개 ₩5,000
- ▶ 우리밀호두과자 30개 ₩10,000
- ▶ 엄마찰보리빵 20개 ₩10,000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0/14~11/17)

2021년 10월~11월에는 김영순 안나, 박로심 마리안나, 변상욱, 익명의 출소자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